

중국

China

1. 고급화되는 중국의 라면시장. 명절 선물용 제품까지 출시!

베이징지사

주요내용

▶ 중국 춘절을 맞이해 다양한 고급 명절상품 출시

- 한국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2.16)이 가까워짐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는 다양한 선물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간식, 음료, 유제품, 조미료 등 다양한 식품들이 선물용으로 고급화되어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 세계 최초 상용화 무인편의점, 광저우에서 시작되다

- 최근 통일그룹은 “탕의 달인(汤达人)”이라는 선물용 라면을 선보였다. 라면(拉面)의 면(面)과 체면(体面)의 “면(面)”이 같은 한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면으로 체면을 세우자, 선물은 탕의 달인으로”라는 광고문구로 선물용 고급 포장 제품을 출시하였다.
- 이번 출시된 선물용 라면은 컵라면과 봉지라면 포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선물용 포장패키지 당 판매가격은 각각 50위안/박스, 46위안/박스이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붉은 색에 “탕의 달인”이라는 한자를 금색으로 표기하여, 현지에서 선호하는 선물용 제품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중국의 화남과 화동지역에서 시범판매를 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고급화를 통해 라면시장의 새로운 도약 기대

- 기존 중국 시장에서 춘절과 같은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선물용 식품들은 주로 주류, 건강기능성 식품, 차류로 라면이 선물용으로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 그룹은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자사 주력 제품인 “탕의 달인”을 고급화하여, 라면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점

- 세계 1위 라면 소비대국인 중국의 라면시장은 과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작년부턴 반등하여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2017-2022년 중국라면시장발전전경예측보고>에 따르면 향후 중국 라면시장은 연평균 2.9%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2021년 매출액이 937억위안(한화 약 1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 중국 라면 시장의 회복은 주로 제품의 고급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5위안 이상의 고급제품이 현재 라면시장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통일 그룹은 자사 제품 중 판매가격대가 5위안 이상인 “탕의 달인”과 “만한대찬”이 주력 상품이며, 라면시장의 강자인 강사부의 고급라면들은 전년도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4%나 증가하였다.
- 최근 선물용 라면의 출시는 이러한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선물용 제품 자체의 매출액보다는 선물용 제품 출시를 통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고급라면으로 분류되는 한국 라면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고급라면들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중국 라면과 차별화된 제품출시와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 中질검총국, 수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보 통보

상하이지사

주요내용

▶ 中 질검총국, 수입식품·불량기록 관리 부실기업 대상 경보 통보

- 2017년 12월 26일, 중국 질검총국은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리스크 경보 통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경보 조치하여 수입기업 41개, 국외 생산기업 42개, 국외 수출기업 38개가 추가로 경보업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 통보를 받은 국외 생산기업 수는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많으며 각 30%, 8%, 7%, 7%를 차지했다. 그 외에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 중국 질검총국은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47개 기업에 경보 조치를 가했으며, 그 중 수입기업 253개, 국외 생산기업 245개, 국외 수출기업 249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경보 조치를 받은 한국기업 현황

- 2017년 12월 26일에 발표된 리스트에서 한국기업은 생산기업 6개, 수출기업 5개가 포함되었다.

연번	발표시기	생산기업 (개)	수출기업 (개)	품목	조치사항
1	2014.12.30	-	-	-	-
2	2015.9.23	-	-	-	-
3	2015.12.29	1	-	수산물	재수출시 관능품질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4	2016.8.26	-	-	-	-
5	2016.11.4	2	2	김 유제품	재수출시 균락총수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6	2017.6.12	11	8	김(6개) 라면(1개)	재수출시 균락총수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발효주(1개)	재수출시 아스파탐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음료(2개)	재수출시 효모균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재수출시 카페인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과자(1개)	재수출시 주석산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7	2017.12.26	6	5	김(3개)	재수출시 균락총수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음료(1개)	재수출시 적채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화장품(2개)	재수출시 황색포도산구균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재수출시 다이옥세인 항목의 테스트 리포트 제출 필요					

▶ **경보 통보를 받은 기업의 조치사항**

- 중국 질검총국은 경보를 받은 기업에 책임을 묻고 관련 제품을 중국으로 재수출할 때 조치사항에서 요구한 테스트리포트 또는 합격증명자료를 중국 검사검역기구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 안전리스크 경보 통보를 받은 기업은 「수입식품 불량기록관리 실시세칙」 중의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 조건’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 후, 검사검역기구에 리스트 조기경보 해소 신청을 해야 위험기업 리스트에서 배제될 수 있다.

* 참고자료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jckspaqi.aqsiq.gov.cn)

시사점

- 경보 통보를 받은 한국기업 중에 50%이상이 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김의 가공과정에서 조미료, 식용유 등을 첨가하기 때문에 균락총수의 기준치를 초과하게 될 수 있으며, 운송할 때 컨테이너 내의 습도가 높아져서 세균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김 수출기업의 경우 위생부분에서 철저한 제품관리가 필요하며, 사전에 수입바이어와 함께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경보 조치를 받은 경우, 재수출시 검사 및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질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와 한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한국 국내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위생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화되는 중국 식품수입 관련 규정에 대해 한국기업들의 발빠른 대응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